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

카스파로프 vs 딥블루(1996, 1997년)



2011년: 왓슨이 <제퍼디> 퀴즈쇼 우승



'세기의 대결' (알파고 vs 이세돌)



왜 바둑 인공지능 연구가 필요한가?

- 바둑은 인공지능 연구의 좋은 플랫폼
 - 특정 뉴런의 역할 (visualization), domain adaptation
 - 인공지능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강화 학습의 한계는 어디일까?
 - 지도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질이 얼마나 중요할까?
 - 다른 신경망은? 연결주의적 접근 외에 다른 방식을 시도해보면?



젠 vs 고바야시 고이치 ('16. 3월,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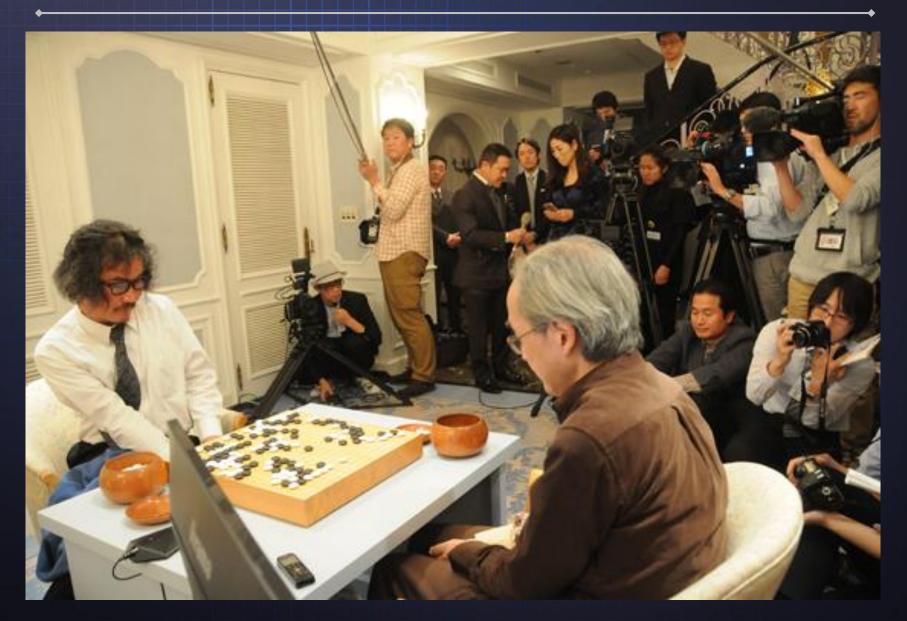




딥젠고 vs 조혜연 ('16. 7월, 2점)



딥젠고 vs 조치훈 ('16. 11월, 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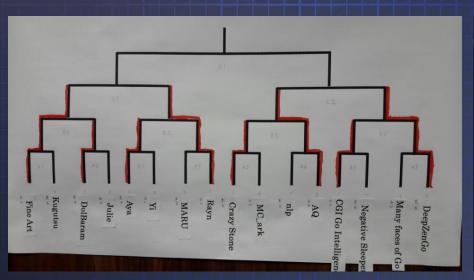
딥젠고 vs 한/중/일 1인자 ('17. 3월, 호선)



딥젠고와 알파고의 차이점

- 하드웨어 사양
 - 알파고 : 세계 500위권의 슈퍼컴퓨터 (~100억 정도)
 - 딥젠고: CPU x 2, GPU x 4 서버급 컴퓨터 (~2,500만원)
- 바둑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목적
 - 알파고 : 바둑을 인공지능 연구의 플랫폼으로 생각
 - 딥젠고 : 바둑 인공지능 자체의 사업화에도 큰 관심
 - Zenith Go (v.6): 가정용 PC에서 인터넷 7~8단 기력
- 2019년에는 프로의 기력을 갖춘 프로그램 출시될 전망

절예 (絶藝, Fine Art)









'한국형 알파고'

2016년 5월



2016년 7월



2016년 12월



바둑 인공지능 Open Research



The Future of Go Summit







프로 기사의 역할?



스토리가 필요하다





프로 기사의 인간적인 면이 지금보다 훨씬 더 드러나야 한다. 그러면 바둑 기술적인 측면에서 수준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팬들이 인공지능의 바둑보다는 인간의 바둑을 보러 올 것이다.

팬들 속으로 들어가야







인공지능 개발의 3요소

- 머신 러닝 알고리즘
 - 주요 라이브러리를 오픈 소스로 풀어놨음
- 컴퓨팅 파워 (하드웨어)
 - 독자적인 슈퍼컴퓨터를 갖추는 대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 데이터
 - Google (검색/메일), Facebook (SNS), Amazon (쇼핑/유통)
 - 사용자 데이터가 많으니 인공지능의 성능이 앞선다.
 - ▶ 사용자는 이들에 몰리면서 데이터를 또 제공한다.





데이터 확보가 관건

- 사용자(개인/기업)가 어떻게 하면 기꺼이 데이터를 제공하게 만들 것인가?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 비즈니스 모델만 있으면 틈새 시장 얼마든지 있어
- 공공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공 서비스나 정책 결정에 활용하면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모델 개발

급변하는 지식 체계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의 80~90%는 이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전혀 쓸모 없을 확률이 크다. 어쩌면 지금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연장자에게 배운 교육 내용으로 여생을 준비하는 게 불가능한 역사상 첫 세대 가 될지 모른다."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상상력(想像力)과 창의력, 질문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경쟁보다 협업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



